

02

토종종자 보전을 위한 한일 워크숍

한국의 토종종자 지키기 활동

부여군토종종자센터 신지연

한국의 토종종자 지키기 활동

부여군토종종자센터 사무장 신지연

들어가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에 씨앗이 있었습니다. 씨앗은 우리 먹거리의 원천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먹거리가 생산될 수 없습니다. 씨앗은 농민들이 생산을 통해 얻는 수확물이자 동시에 우리의 밥상을 유지시키는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씨앗은 수천년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역사와 문화, 생물의 다양한 유전자가 담겨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씨앗들이 발견되고, 농민들은 농사를 통해 씨앗을 발전시키고 보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농민의 씨앗이 기업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종자를 사다가 재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각종 제도와 국제적인 협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종자뿐 아니라 거름, 비료, 농약, 농기계, 친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자재까지 시장에서 구입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씨앗을 스스로 확보하지 못해 외부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돈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농민의 씨앗은 오랜 기간에 걸쳐 씨앗을 재발견하고, 보존하고 교환하면서 지역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우리의 먹거리를 유지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시키고 향상시켜 왔으며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과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자의 상품화로 돈이 되는 종자를 앞세운 기업들의 종자는 단일화되고 획일화되면서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토종씨앗이 사라진 자리에 기업에 의한 유전적으로 획일화된 몇 개의 종자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인 벼 역시 다양한 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정부의 보급종으로, 그 이후에는 몇 가지의 품종으로 줄어들면서 다양한 토종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종자들이 존재하고,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종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라지는 토종씨앗은 곧 인류의 생명과 지구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1. 토종씨앗의 의미와 중요성

1) 토종씨앗이란?

토종씨앗은 현장인 농가에서 농민의 손을 통해 대대로 보존되고 기후와 토양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자라고, 수확하여 채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현장인 농가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라고 해서 현대식 시설로 마련된 종자 보관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에서도 사용가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장인 농가의 농지에서 지속적으로 재배되고 길러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민의 손을 통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민의 손을 거쳐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의 성질에 맞게 적응하여 발달하는 종자가 토종씨앗입니다. 토종씨앗의 권리는 어디까지나 이것을 심고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 농민들에게 있고, 농사의 시작이자 끝이 바로 토종씨앗입니다.

2) 토종씨앗의 중요성

첫째, 토종씨앗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으려면 먹어야 삽니다. 그 먹을거리의 시작이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았듯이 알약을 먹고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둘째, 씨앗은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해결할 열쇠입니다. GMO가 식량위기를 해결하는 열쇠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인류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생태계의 교란을 우려하는 전 세계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의 땅에서 자라는 우리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종의 다양성은 지구를 이롭게 하고, 환경을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종으로 생태계가 교란되는 위험성이 종종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종의 다양성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넷째, 씨앗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씨앗이 사라졌습니다. 한 해마다 500여종씩 사라진다는 다양한 생물종, 그 안에는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된 씨앗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찾아내서 보존해야 합니다.

다섯째, 토종씨앗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땅에서 나고 자라서 우리의 몸에도 안전하다는 것이 오랜 역사를 통해 증명되어 왔습니다. 토종씨앗을 지키지 않는다면 수십억 원을 주고도 종자를 구하지 못해서 식량위기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토종씨앗을 지키는 활동

1) 토종씨앗 실태조사 : 사라지는 토종씨앗을 찾아라!

우선 토종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가 토종씨앗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사라지는 토종씨앗을 찾아라! 즉, 토종씨앗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을의 농가마다 들어가서 토종씨앗이 있는지 묻고 씨앗이 있으면 얻기도 하고, 그 씨앗에 대한 특성과 정보, 언제부터 갖고 계셨는지, 이름은 무엇인지부터 하나하나 기록하고 모으는 활동이 토종씨앗 지키기 활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원 횡성, 평창, 전북 임실, 완주, 충북 괴산, 제주등 토종전문가인 안완식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 실태조사 교육도 받고 현장실습도 하고 1년여에 걸쳐 각 대상 시군을 반복 방문하면서 토종씨앗을 찾고 기록하는 활동이 이어졌고 그렇게 모아진 정보를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와 횡성, 임실, 괴산등에서 지역의 토종씨앗 실태조사의 결과를 책으로 만들었고, 각 지역에 맞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토종씨앗 실태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 토종씨앗 채종포 : 찾아낸 토종씨앗을 늘려라!

“어렵게 찾아낸 사라지고 있는 토종씨앗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채종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채종포는 그야말로 채종을 해서 종자를 두 배 혹은 그 이상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농약을 원칙으로 건강한 종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혹은 한 분의 책임자(혹은 매니저- 보통 나이 드신 여성농민들의 도움을 받아)가 운영하는 형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종포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씨드림, 한 살림, 귀농운동본부등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생협, 도시농부등에서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로도 진행되는 등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3) 1 토종씨앗지킴이 1토종 지키기 : 나는야 자랑스런 토종씨앗 지킴이!

토종씨앗 지킴이는 1명의 농민(도시농부)이 1품종 이상의 토종씨앗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지역에서 분양받은 토종씨앗을 전국 각지역의 마을마다 토종씨앗을 널리 확대하기 위해, 심고 가꾸어 다음해에 다시 분양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토종종자 보존 지원 조례 : 농민에게 종자에 대한 권리를!

토종씨앗 보존 지원 조례는 현재 경남과 전남, 제주, 강원, 경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토종농사를 짓는 것은 생물종 다양성을 지키고 우리의 농업을 지속시켜나가는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활동입니다. 이런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직불금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자 토종씨앗을 지키는 활동에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전북과 경북에서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시군까지 조례 제정을 통해 토종 종자를 지키는 지킴이들의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토종 씨앗 축제 : 퍼져라 토종씨앗!

일년 동안 토종농사를 지어서 수확기가 되면 토종씨앗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토종씨앗 축제는 도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와 여성농민 생산자들이 중심이 되어 모이는 토종축제, 이른바 자랑대회 형식으로도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단체와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특색에 맞게 토종씨앗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축제에서 토종씨앗 나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씨드림 모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축제, 마르쉐 토종축제, 각 시군 지역토종축제등이 있으며, 중앙 중심에서 도별, 시군별 축제로 분화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별로도 다양한 형태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6) 토종씨앗 도서관: 씨앗 나눔에서 씨앗 확산의 장소!

축제나 나눔행사등 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토종씨앗을 나눔받고 다시 수집할 수 있는 안정적 공간이 여러곳에서 생겨났습니다.

경기도 수원, 충남 홍성, 제주등에서 토종씨앗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인 도서관의 형태로 개인이 토종씨앗 나눔을 하고 다시 돌려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토종씨앗 지킴이 활동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토종씨앗을 구하는 문제가 전국 각지가 아닌 자기 지역에서 난 씨앗을 자기 지역에서 심고 확산하는데 토종씨앗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토종씨앗 네트워크

2008년부터 생협, 여성농민단체, 연구소, 개인, 농민단체, 귀농단체등이 모여 토종씨드림이라는 토종씨앗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고, 씨드림은 중앙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분화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적으로 지역별로 많은 토종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

고 있고, sns를 통한 네트워크도 만들어졌습니다.

토종씨앗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농사 기술이나 토종연구를 위한 토종농사회도 만들어졌으며, 토종씨앗 만큼이나 다양한 토종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또한 토종농사를 짓는 사람들, 토종씨앗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충남 토종종자네트워크(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들은 서로의 농사에 지지와 지원을 하며 자생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며

예전에 비해 토종씨앗에 관한 관심과 활동이 왕성해졌습니다.

토종씨앗이 무엇인지, 토종씨앗을 왜 심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접근에서 토종씨앗을 어떻게 농사짓는지, 어떻게 수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비자에게 접근할 것인지등 토종씨앗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까지 고민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는 토종씨앗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시한번 토종씨앗의 본질적 문제 즉 종자주권, 식량주권 그리고 씨앗이 심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농부권까지 토종씨앗의 의미를 직접 농사를 지으며 체득하고 있습니다.

토종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토종씨앗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많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토종씨앗으로 만들어진 많은 네트워크들이 중앙뿐 아니라 지역까지 풀뿌리처럼 퍼져 토종씨앗을 지키는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토종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의 권리,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식량주권이 한국에서 더욱 꽃피기를 바라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별첨] 각도별 토종농산물 보전육성에 관한 조례 모음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10.10.] [경상남도규칙 제3076호, 2014.10.10., 일부개정]

경상남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보존·육성품종 지정)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토종 농산물로 보존·육성할 품종을 매년 지정한다. <개정 2009.08.13>

제3조(우선 지원지역)

조례 제5조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지역특화·향토사업 추진 지역
2.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농림사업 추진 지역
3. 그 밖에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 지역

제4조(재배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재배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농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용도 및 관리방안
2.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면적과 수확시기
3. 향후 토종농산물의 연도별 생산계획 등

제5조(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신청 등)

-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지급단가에 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의 상한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8.19>

제6조(종자공급)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종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 농업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원의 종자공급이 부족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원장의 확인을 받아 재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7조(재배관리)

시장·군수는 토종농산물로 재배신고 처리된 품종은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상황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9, 2014.10.10>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0.20.] [전라남도조례 제3502호, 2011.10.20., 제정]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06128663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자생하는 토종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작물”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 별도로 도지사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작물을 보호·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 ① 도지사는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작물 생산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작물의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 ②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농업인 등이 지역 토종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매년 2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비보전지원 신청 및 지원)

- ①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토종작물을 재배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조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산비보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토종작물별 수익성 기준, 지원금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③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토종작물별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

- ① 제7조에 따라 지원금 대상자 결정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 ② 도지사는 매년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토종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2-31 조례 제 974호

(일부개정) 2015-10-06 조례 제 14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토종농작물”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 2.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 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 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 5. “토종농작물 마을”이란 마을내의 50% 이상의 농가가 토종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 마을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호·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1. 토종농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 2. 토종농작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

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증식포 임대료 및 재료비 지원
2. 토종농작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
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토종농작물 종자 수매사업
5.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지원
6. 토종농작물 시료 보관 및 종자은행 시설 지원
7.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장에게 파종 5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생산비 보전지원 신청) ① 농업인 등은 토종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조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도지사에게 생산비보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토종농작물별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종농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회수는 연 1회로 제한한다.

강원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5-16 조례 제 37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종자를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5. "토종마을"이란 마을내의 50%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부락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민관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① 도지사는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토종농작물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의 마련과 개선
3.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원 부장, 농산물원종장장, 시·군 농업기술센터장,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례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의안 제출)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연도 도의 행정구역에서 토종농작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도내 공공기관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
4.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 사업 지원 계획
5. 그 밖에 도민의 토종농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9조(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토종농작물을 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에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위농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0조(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마늘 등 토종농작물을 집단으로 재배 또는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유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토종농작물 생산실비 수준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하고, 토종농작물 보유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제11조(토종농작물재배계획의 제출) 농업인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파종 5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① 농업인 등은 제11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13조(직접지불금의 지급 범위) ①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을 재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일 품종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

제14조(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결정) ① 제12조에 따라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 2014.10.21.] [경기도조례 제4788호, 2014.10.21., 제정]

경기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농업과 경기도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법·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어법·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감안하여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토종농작물 시범농장 지정·운영, 토종농작물 관리센터 운영 등 행·재정적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민관정책협의회)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육성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사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가공업·유통업·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7조(보존·육성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

① 농업인 등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책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정산 및 평가)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완료이후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